

2013. 1. 21.
제42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대 법 원 장 님 말 씀



대 법 원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가족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826명의 새로운 법조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2년간의 고된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수료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료생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가족·친지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정성을 다하여 지도해 주신 사법연수원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오늘, 우

리 사회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직분입니다. 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인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가장 중추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사명은 공직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 진출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신뢰 수준은 아직 만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으면 법조인으로서 행하는 어떤 것이든 정당하게 평가

되거나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조의 어느 직역에 있든 국민과의 진정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진정한 법의 가치와 법조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조실무능력의 배양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고유한 지식과 경험을 익혀 식견을 갖추는 한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법조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봉사

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새 법조인 여러분!

최근 우리의 법조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로 법조계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데 반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따라 외국의 변호사들도 우리 법률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법부 역시 일정한 법조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지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법조의 양적

팽창과 경쟁의 심화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조 환경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사회는 법조에 대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조 환경의 변화는 법조의 길에 막 들어선 여러분에게 어찌면 힘겨운 과제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와 성공은 평범함 속에서가 아니라 위기와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에 당당히 맞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법조 직역은 오히려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더욱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히 팽창하며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이 법조인의 손길이 필요한 미지의 분야도 분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법조인 다수가 종사하던 기존의 송무 영역에만 안주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에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법조인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조 영역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공고히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새 법조인 여러분!

여러분은 급변하는 사회와 어려운 법조 환경 속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

다. 법조인으로서 출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이에 관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 19세기 말 쿠바에서 벌어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 대통령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전갈을 쿠바의 산속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해야 하는 긴급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때 로완 중위라는 인물이 그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혼자서 적진을 뚫고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 편지를 전달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로완 중위가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스스로

의 힘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그가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맡은 임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역에 종사하든 로완 중위와 같이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에 임한다면 그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고, 나아가 모든 이들의 환영과 지지 속에서 누구보다도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법조인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첫 장에 서 있습니다. 이미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여러분은 우리 법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새로운 법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법조인으로서 새로이 출발하는 여러분의
첫 발걸음에 다시 한 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1. 21.

대법원장 양 승 태